

돈 벌고 싶다면 ‘싱글·노인·3545세대’ 주목

BIZ CAFE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김용섭** 씨

소비가 가장 왕성한 숨은욕구 세대
내년 동계올림픽·월드컵도 포인트
트렌드는 생존, 알아야 기회가 온다



“내년에 돈을 벌고 싶다면 싱글과 노인, 3545세대(35~45세)에 주목하라. 그들이 어디에 끌리고 쫓히는지 보라. 거기에 새로운 기회가 숨어있다.”

2013 새로운 트렌드로 ‘좀 놀아본 오빠들의 귀환’이라는 화두를 들고 와 큰 화제를 일으켰던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 씨가 내년 한국의 트렌드를 이끌 새로운 화두로 ‘그녀의 작은 사치’를 들고 돌풍을 준비하고 있다.

그의 눈에 비친 내년 세대별 트렌드 코드는 이렇다. 2030 여성이 마카롱과 네일 케어를 통해 위안을 찾는다면, 3040 남성은 명품시계를 통해 은근한 과시와 멋진 스타일을 찾는다. 5060은 탕고의 향기에 빠지고 젊은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록페스티벌에 참여해 헤드뱅잉을 한다. 6070은 손주빨이나 입던 패스트패션과 청바지를 소화하고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한다. 그는 최근 이런 트렌드를 담은 ‘라이프 트렌드 2014, 그녀들의 작은 사치(부기 퍼냄·사진)’를 출간했다.

- ‘라이프 트렌드’ 시리즈는 상상력이 넘친다. 그 상상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날카로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나.
“오랫동안 쌓여서 좋은 상상력이 생긴 거다. 다양한 산업 분야를 거치며 컨설팅과 비즈니스를 했고, 그동안 26권의 책을 집필했다. 쓴 칼럼과 강연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렇게 오랜 기간 쌓이고 쌓여서 좋은 인사이트도 생기고, 날카로운 상상력도 가진 거다. 분석 없는 창의성은 공허하고, 창의성 없는 분석은 맹목이라는 말이 있다. 결국 좋은 상상력을 갖추려면 분석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 불황시대다. 여기저기서 살기 힘들다고 난리다. 불황시대 왜 트렌드에 관심을 가져야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 씨는 “2014년 한국의 트렌드 키워드는 싱글과 노인 그리고 3545세대”라고 말한다. 그는 “불황의 그늘이 짙더라도 트렌드를 알면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긴다”며 “트렌드 정보는 생존정보”라고 강조했다.

하나.

“트렌드는 사람들의 욕구에 대한 흐름이자 새로운 소비와 비즈니스 기회를 담고 있다. 불황에는 더더욱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런 트렌드 정보를 알아야 한다. 남보다 한발 앞서고 싶거나,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싶다면 트렌드를 아는 건 필수다. 트렌드를 안다는 건 새로운 기회를 먼저 잡자는 것이고, 적어도 세상의 흐름 속에서 좀더 잘 살기 위함이다. 아는 것은 힘니까.”

-2013년 ‘좀 놀아 본 오빠들의 귀환’에서 2014년 키워드를 ‘그녀들의 작은 사치’로 잡았는데 이유를 알려 달라.

“올해도 불황이지만 2014년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다. 작은 사치는 2014년의 라이프 트렌드이자 소비 트렌드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슈다. 우리에게 돈이 없다고 소비에 대한 욕구조차 없어지는 게 아니다. 분명 불황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린 소비욕구를 살릴 새로운 답을 늘 찾게 되는데 작은 사치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답이다. 특히 여성들의 작은 사치 속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작은 사치는 이미 예전부터 시작된 흐름이었지만 2013년에 부각되고, 2014년에 더더욱 확대되고 보편화되면서, 2014년 이후까지 계속 라이프

트렌드와 소비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흐름이 된다.”

-2014년 비즈니스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더 깊어진 불황의 골에서 비즈니스도 더 첨예한 경쟁을 겪으며 아성이 무너지는 공룡들도 꽤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창조혁신 열풍은 더 거세지고, 다양한 도전들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착한 소비와 소비자의 진화가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구도의 변화, 그리고 전자자동차와 3D프린터를 비롯한 하이테크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일상적 소비가 주는 산업의 기회, 작은 사치와 패션의 욕망에 눈뜬 사람들에게서 찾는 마케팅의 기회를 주목해야 한다.”

-내년에 돈을 벌고 싶다면 무엇이 관심을 가져야 하나. 3가지만 꼽아 달라.

“첫째, 사람들의 숨은 욕구에 관심 가져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소비 세력으로 성장하는 싱글과 노인, 3545세대를 주목해야 한다. 둘째, 절박함이나 탐욕을 버려야 한다. 탐욕은 돈을 날리는 대개의 이유가 된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도 지우자. 비즈니스에서의 선입견이자 고정관념은 변화하는 시대에선 발목을 잡는다. 특히 자영업에선 더더욱 중요하다. 셋째, 애국심도 기억해야 한다.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이 열리는 해다. 이때가 아니면 또 다시 몇 년 후가 되어야 돌아올 기회다. 애국심을 부추기는 마케팅이 확대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

도대체 이렇게 앞을 분석 예측하는 건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그의 명함엔 ‘공식적’으로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이다. 그 외 트렌드 연구자, 경영전략 컨설턴트, 콘텐츠 디렉터, 비즈니스 창의력 연구자 등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다. 이렇게 ‘오지랖이 넓으니’ 바쁜 건 당연지사. 그는 요즘 대기업 강연에 TV출연, 기업 컨설팅에 저술까지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트렌드를 읽어 주는 그가 끝으로 한마디 던졌다. “트렌드라는 말에 휘둘리지 말라. 트렌드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면 휘둘리기 쉽고, 그것이 맹목적 트렌드 소비로 이어져 기업의 돈벌이에만 기여하기 쉽다. 또 트렌드를 무슨 토정비결 보듯이 대하진 말아야 한다. 연말연초에만 트렌드 정보를 관심가질 게 아니라 연중 늘 관심 가져야 한다. 트렌드는 늘 새로운 기회를 쏟아내기 때문이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TOUR & INFO

| 겨울철 낭만 여행지



기술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호텔들은 연인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추억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내놴. 롯데호텔제주의 사계절 온수풀 ‘해온’ 전경. 사진제공 | 롯데호텔

때 이른 추위...남쪽으로 떠나자!

롯데호텔제주·해비치호텔 등 패키지 상품 다양
연말맞이 여성을 위한 파티 패키지도 속속 선보

달갑지 않은 ‘한파’가 일찍 찾아왔다. 올 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울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도 있었다. 눈이 내리는 하얀 겨울은 추억을 만들기에 더 없이 좋은 계절. 하지만 추운 날씨 탓에 여행을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계절이기도 하다. 이럴 때 연인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호텔에서 따뜻하게 추억을 나누는 ‘힐링 여행’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국내 주요 호텔들은 낭만이 가득한 포근한 패키지 상품을 다양하게 내놴.

●따뜻한 남쪽으로 가자

겨울엔 조금이나마 덜 추운 남쪽 지역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제주도. 롯데호텔제주는 ‘윈터 해온 스파’ 패키지를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운영한다. 투숙 기간에 따라 ‘해온 패키지’와 ‘해온 카바나 패키지’ 2종으로 나뉜다. 해온 패키지는 디럭스 마운틴 객실 1박과 조식 2인, 글루바인 캠페일2잔, 클럽 차우더 수프 1개가 기본으로 준비된다. 가격은 1박 기준 33만원부터다. 해온 카바나 패키지는 슈퍼리어 레이크 객실 2박과 조식 2인, 글루바인 캠페일2잔, 클럽 차우더 수프 1개에 해온 카바나 다이닝 1회 제공이 포함된다. 2박 기준 78만원부터다. 모든 패키지 이용 고객은 사계절 온수풀 ‘해온’은 물론 자쿠지와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비치 호텔&리조트는 ‘해비치 굿바이 2013’ 패키지를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제공한다. 오션뷰 객실과 조식 뷔페 2인, 스페셜 베딩 린넨 서비스(호텔), 비어 테이스팅 로드 이용권 2인, 디너 뷔페 2인, 해비치 익스플로러 2인 이용권 등으로 구성된다. 가격은 48만원부터다.

한반도 낭만에 위치한 여수도 겨울에 가볼 만한 여행지다. 엠블호텔 여수는 12월13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러브 패밀리’ 패키지를 판매한다. 객실 1박과 조식(성인2인, 소인1인), 그리고 룸서비스로 제공되는 케이크와 와인 1병이 포함돼 있다. 패키지 가격은 슈퍼리어 기준 주중 30만원, 주말 33만원이다.

●여성들만을 위한 연말 파티

연말엔 송년회가 많다. 시끌벅적한 연말 술자리를 좋아하지 않는 여성들은 친구들끼리 호텔에 하룻밤을 묵으며 파티를 즐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롯데호텔서울은 최근 여성전용 파티 패키지를 내놴. 여성에게만 허락된 전용 객실층에서 특별한 파티를 꾸밀 수 있는 ‘레이디스 나이트’ 패키지는 디럭스 룸(3인 기준) 1박과 클럽라운지 3인 이용, 수영장·사우나 및 퍼트니스 3인 혜택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화이트 와인과 과일, 피자, 파스타 등이 준비된 파티 세트 메뉴를 제공하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와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인스타그램 카메라를 필름 20매와 함께 대여해 준다. 가격은 46만원이다.

엄마와 딸을 위한 패키지도 있다. 엠블호텔 킨텍스는 모녀를 위한 아주 특별한 상품 ‘맘마미아’ 패키지를 최근 출시했다. 정상급 오리지널 내한공연 ‘맘마미아 뮤지컬’을 연계해 내놓은 상품.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객실 1박과 코스 디너를 룸서비스로 받아 볼 수 있다. 아울러 산테로 모스카도 스푸만데 와인 1병이 제공된다. 뮤지컬 맘마미아 R식 티켓 2장(공연일정 란별 증명)도 준다. 가격은 55만6600원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에버랜드서 만끽하는 낭만적인 겨울 축제

환상적인 겨울을 만끽하고 싶다면 테마파크를 주목하자. 국내 테마파크는 12월 크리스마스를 콘셉트로 다양한 축제를 벌인다. 먼저 에버랜드는 12월



31일까지 ‘크리스마스 판타지 축제’를 펼친다. 약 500m 거리에 조성된 ‘크리스마스 에비뉴(사진)’에는 조명 장식이 환하게 비춘다. 특히 터널 조명 형태의 ‘에버 밀키웨이’는 연인들을 위한 추천 코스다. 이 밖에도 인공 눈을 흙날리며 640m 규모로 이어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와 레이저와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 멀티미디어 불꽃쇼 ‘매직 인 더 스카이’도 매일 펼쳐진다. 에버랜드는 또 22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빛의 축제인 ‘로맨틱 일루미네이션 축제’를 열어 낭만적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웅진플레이도시도 12월25일까지 ‘화이트 크리스마스파티’를 연다. 노천 스파에 다수의 제설기를 설치해 맑은 날에도 하얀 눈이 평평 내리도록 연출했다. 실제 스파존에는 하얀 버블로 가득 채운 ‘화이트 버블 스파’를 새롭게 선보였다. 각양각색의 공을 가득 채운 어린이를 위한 전용 스파 공간 ‘크리스마스 볼풀 스파’도 새롭게 준비됐다. 최대 3인까지 함께 탈 수 있는 패밀리 눈썰매와 산타 이글루를 만나 볼 수 있는 스노우파크도 동심을 자극하는 인기만점 놀이장소다.

김명근 기자



미술사 최현우가 오는 12월1일까지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매직 콘서트를 연다. 설록 홈즈를 테마로 한 스토리가 있는 마술쇼 한 편의 뮤지컬 혹은 아이돌 공연 관람 못지 않은 다양한 시작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사진제공 | 라운플레이

한 편의 뮤지컬 관람하는 듯한 스토리
막판 ‘플라잉 매직’은 공연 하이라이트

아이들을 데리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볼 만한 공연으로는 서커스와 마술쇼만한 게 없다. 누구나 좋아하기에 공연에 초대할 동반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게다가 요즘 마술쇼는 확실하게 진화했다. 어쩔지 추억장사로 쇠락한 느낌을 주는 서커스와 달리 마술쇼는 최첨단 IT장비와 특수효과로 무장하면서 어지간한 뮤지컬이나 아이돌 그룹 콘서트 뺀치는 세련된 재미를 선사한다.

최현우의 마술쇼는 그래서 타이틀도 ‘콘서트’다. 12월 1일까지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절찬리 공연 중이다. 관객이 물리는 주말 공연은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공연의 정식 타이틀은 ‘최현

우의 매직콘서트 더 설록-553번가의 비밀’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고급의 명탐정 설록 홈즈가 주인공이다. 최현우는 설록 홈즈로 분해 관객과 함께 살인범을 쫓는다.

●영화 ‘그래비티’의 공중유영이 무대에서 펼쳐지다

한 편의 뮤지컬을 관람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살인범을 추격한다는 줄거리를 빼다로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곳곳에 삽입했다. 카드와 같은 가벼운 소품부터 무대를 압도하는 중장비까지 최현우의 마술도구는 한계가 없다. 록그룹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강렬한 음악과 조명으로 마술효과와 최대치를 뽐아내는데 단단히 한몫한다. 실제로 이번 공연에는 뮤지컬 제작진이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각각의 에피소드는 단편극처럼 진행되지만

만 노련한 작가가 쓴 소설처럼 길목마다 복선이 깔려 있다. 전반부의 마술이 후반에 중요한 실마리로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마술은 쇼’라는 사실에 의심마저 가게 된다.

대형 물체(어떤 것인지는 알려드리지 않는다)가 순식간에 깜짝 등장하는 일루전 매직, 관객과의 심리전을 통해 하나 하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멘탈 매직은 최현우가 왜 ‘최현우’ 인가를 깨닫게 한다.

막판에 선보이는 플라잉 매직은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 마치 영화 ‘그래비티’에서 산드라 블록이 보여준 우주유영의 판타지 같다. 사람이 공중에 뜬 것일처럼 느릿느릿 날아다닌다. 와이어 같은 것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미녀도 우미들이 들고 나타난 커다란 링을 통과하고, 심지어 뚜껑이 덮인 유리상자 속에서도 동등 떠다닌다.

●공연장에는 가끔씩 10분전에 입장을

‘보안’이 중요한 마술쇼의 특성상 더 이상의 소개는 스포일러의 오명을 쓸까 두렵다. 최현우의 매직콘서트는 10년 이상 이어온 브랜드 매직쇼다. 올해만 해도 지난 2월 창원을 시작으로 전국 20개 도시를 돌며 공연했다.

마지막으로 관람 팁 하나. 공연장에는 최소한 10분 정도 일찍 입장하는 것이 좋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관객과의 아가자기한 ‘놀이’가 진행되는데, 이 재미가 본공연 못지않게 쏠쏠하다. ‘마술사’ 최현우는 물론 ‘배우’ 최현우를 발견하는 재미도 만만치 않다.

아참, 최현우 씨! 딱 하나. 마지막 가랑마술의 비밀만큼은 저도 눈치 했습니다. 나머지는 눈이 네 개라 해도 전혀 모르겠더군요. 양형호 기자 rranbi@donga.com 트위터 @rranbi361